

외국인 노동자 한국인 청소년 우정으로 통했어요

청교련 문화체험 행사에 90여명 참가 성황

“외국인 노동자 하면 웬지 무섭게만 느껴졌는데, 함께 어울려 연꽃등도 만들고 웃음도 하면서 편견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야겠어요.” (순고는·안양외고 2)

9월 19일 인천시 청소년수련관은 외국인 30여명과 청소년 60여명이 나누는 사랑과 우정으로 따뜻한 기운이 넘쳐올랐다. 바로 대한불교청교련교회연합회(회장 현성)가 마련한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현장.

이번 문화체험은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한데 어울려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부터 시작한 행사는 제기·딱지 접기 등 추억놀이마당과 봉숭아 물들이기와 치자염색체험 등의 천연염색마당, 연꽃 등·달걀바구니 만들기 등의 소풍공예마당 등이 다양하게 진행됐다.

“여기 구멍에 짚을 넣어서 꼬면, 달걀이 안 빠져나와요.”

“여기, 이렇게요?”

“네, 너무 잘하네요.”

체험마당 곳곳에서는 서투른 손놀림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청소년들과 속스러운 웃음으로 고마움을 전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간의 이야기꽃이 활짝 피었다. 언제 한국에 왔는지부터 무슨 일을 하는지, 어려운 점은 뭐가 있는지, 아이들은 있는지...



9월19일 열린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 현장에서 한국청소년과 외국인들이 웃음꽃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다른 생김새에 게다가 10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무슨 이야기를 할까 싶었는데, 아이들은 특유의 솔직함과 순수함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 발짝 다가와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들 역시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의 마음을 가슴으로 느끼며,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고향에 있는 동생들이 생각나요. 타지에서 외로웠는데, 이렇게 예쁜 동생들과 합장주도 만들고 재미있는 게임도 하니 너무 너무 기뻐요.” (자말블루·24. 방글라데시)

“평소 휴일 때 방에서 텔레비전 보는 것밖에 별다른 할 일이 없었어요. 일하는 곳 말고 이렇게 한국인들을 많이 접할 기회도

없구요.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들뜨고 설레네요.” (자비트·28. 스리랑카)

체험마당이 끝나자 흥겨운 율동놀이를 시작으로 청소년동아리 팀의 풍물놀이와 가야금 연주, 전문공연팀의 승무와 살풀이 공연, 외국인 특 밴드의 공연 등이 잇따라 펼쳐졌다.

흥겨운 리듬에 어깨를 들썩이며 하나가 되어가는 외국인 노동자와 청소년들. 어느덧 땅거미가 지자 이별의 시간을 감지한 이들은 두 손을 꼭 부여잡으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은 발원들을 가슴에 새기며...

글·사진=김은경 기자 ipck@buddhapia.com

“눈높이에 맞춰 책 만들겠다”

인터뷰 불교출판문화협회장 원택 스님



“12년 전 창립했던 ‘불교출판협회’를 좀 더 잘 이끌었다면 오늘날 협회를 재창립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졌다 생각하고 불교출판문화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월 20일 불교출판문화협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원택 스님(사진)을 만났다.

▲소감은?

“오늘날은 종이책의 권위와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낮은 시점이다. 불교출판문화협회가 재창립하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오늘날 불교출판계의 위기의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불교계 출판사와 단체들이 ‘불교 독서운동’을 일으켜보기 위해 결성한 단체를 맡게 돼 많은 부담감을 느낀다. 하지만 앞으로 불교 출판의 수준과 내용을 향상시켜 좀 더 대중에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출판물을 선보인다면 더 나은 출판문화가 형성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나?
-대외적으로는 다양한 독서운동을 전개해 불서 읽는 풍토를 활성화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불서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출판시간 공동 기획과 출판으로 양질의 불서를 생산해내는데 주력할 것이다. 또한 협회 내에 ‘독서진흥위원회’ ‘유통대책위원회’ ‘도서관대책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꾸려 불교 출판인의 역량 강화와 출판문화 진흥에 대해 연구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실천해 나가겠다.

사찰에 도서관 건립 요청 유통구조 개선 나설 계획

▲중점을 둘 사업은?

-우선 종단 차원에서 본사급 사찰에 일반 대중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이는 곧 불자들과 일반인들이 쉽게 불서에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출판물의 판매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대중적인 필자를 개발하는 것도 급선무다. 불자들 대상의 ‘전문 서적’에서 탈피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회원사들이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쉽지만 질 높은 책’을 펴낼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겠다.

여수령 기자

신발 1천켤레 북에 보내

참여불교운동본부(상임의장 혜종·이하 참여본부)가 추진하는 대북지원 신발 1차분 1천 켤레의 선적식이 9월 20일 오후 인천항에서 이뤄져 부산지역 불자들의 대북 생필품 지원운동이 본격적으로 열렸다.

이날 참여본부의 통일신발지원단(단장 황정 스님) 행사에는 단장 황정 스님, 태종사 조실이자 참여본부 상임교무원 도성 스님, 참여본부 공동의장인 진관 스님, 참여본부 공동부위원장 자문 스님, 김명 참여본부 사무처장을 비롯한 자비의 통일신발지원단 회원 50명이 참여했다.

이날 선적된 신발은 평화통일불교협의회의 기존 교류 창구를 거쳐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에 전달된다. 한편 참여본부는 지속속인 통일신발지원사업의 전개를 위해 1개월에 2000원씩 지원하는 후원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051)322-7902

권민희 기자

JTS, 용천에 의약품 추가지원

한국 JTS(이장 박문)는 대규모 폭발 사고를 겪는 북한 용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의약품 선적식을 9월 21일 인천항에서 열었다. 이날 배에 실린 공적 등 어린이 용품과 향생제, 청진기 등 의료용품 등은 23일 남포항으로 운반해, 조선불교도연맹이 인계했다. 이번에 보내진 지원물품은 총 5천 4백만 원 상당이며, JTS는 지금까지 1억 3천만 원어치 물품을 지원했다.

강유신 기자

대불청 회장후보 단독출마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상욱) 제23대 중앙회장선거에 김의석 후보가 단독출마했다.

대불청은 지난 9월 15일 회장선거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 중앙 부회장인 김의석 후보(45)가 단독 출마했다.

대불청 중앙회장 선거는 10월31일 갑사 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된다. 직할 지구·지회 임원 중 과반수 이상이 제작한 가운데 50%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당선가능하다. (02)738-1920 김은경 기자

스님 절반, 조계종 복지정책 ‘부정적’

‘시설지원 원한다’ 67%

조계종 본·말사 주지 스님 2명 중 1명은 종단이 진행 중인 사회복지사업에 부정적인 반면, 타 종단 및 종교의 사회복지사업과 비교할 경우, 74%에 가까운 응답자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조성희 교수가 지난 7월 7일부터 8월 5일까지 김포 중앙승가대에서 진행된 전국 교구본말사 주지 연수에 참석한 173명의 주지 스님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설문에 따르면, 종단 복지사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50%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매우 긍정적’이라 답한 응답자는 15.3%였다. 반면 타종단 및 이웃종교의 복지사업과 비교할 경우, 73.9%의 응

답자가 긍정적이라고 답해 대조를 보였다.

특히 시설운영 방식과 관련해 응답자 66.7%가 시설을 지원하는 행태를 원한다고 답해 시설 직영운영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나타냈다. 어떤 시설을 운영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68.4%가 아동시설로 답했고, 그 뒤로 복지관(28.8%), 양로원(27.9%) 등으로 답변했다.

또 복지예산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64.7%가 ‘없다’고 답해 교구본사가 복지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돈’ 문제로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복지예산이 ‘있다’고 응답한 수치는 35.3%에 불과했으며, 평균 예산금액은 784만원 정도로 집계됐다. 이외 사회복지 전담직원이 있는 곳은 응답자 10.5%에 미쳤으며, 직원이 1명인 곳이 52.9%에 달했다.

김철우 기자

“반가사유상 78·83호 고구려·백제서 제작”

그 동안 신라 제작설이 우세하던 국보 제 78·83호 금동반가사유상 제작국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강우방 이화여대 교수는 9월 22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진 ‘세계미술사상 두 걸작, 금동사유상살상의 새 고찰’이라는 특별강연회에서 국보 제78호는 고구려, 국보 제83호는 백제의 작품이라는 주장을 폈다. 강 교수는 제78호의 보관(寶冠)에는 고구려벽회의 ‘영기 싹 무늬’가 보이고 동자(童子) 표현에서 도가 영향을 나타내, 도교가 성행했던 6세기 후반에 고구려에서 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제83호는 백제시대 불상들과 양식이 유사하며, 조형성과 양식이 탁월해 백제 미술 전성기인 7세기 전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익순 기자

치매센터·스님 복지시설 건립 추진

불교자원봉사련 창립 10주년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이하 불자련)가 9월 30일 창립 10돌을 맞는다. 서울 방생선원 주지 성덕 스님이 주도한 ‘한국방생바라밀회’를 모태로 출범한 불자련은 책박했던 불교계 자원봉사활동에 방향성을 제시, 이제는 대표적인 불교자원봉사단체로 자리매김을 했다.

불자련의 10년간 성과는 회원 수와 봉사시간에서 그대로 확인된다. 현재 회원 수 3600여명, 이 중 937명은 하루도 빠짐없이 봉사처에서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이들이 10년간 펼친 봉사시간은 18만 6810시간, 하루에 8시간씩 쉬지 않고 25일간 활동한 시간과 같다. 937명 봉사자 1인당 평균 100시간을 봉사한 셈이다.

김철우 기자

봉사조직력도 대단하다. 총 39팀이 전국 51곳의 복지시설, 병원, 무료급식소 등에서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거처한 봉사처만 110여 곳이 넘는다.

특히 불자련은 전문자원봉사 인력도 배출했다. 94년부터 매년 두 차례 자원봉사사민대학을 운영, 총 1,683명의 불교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있다.

불자련은 10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한다. 우선 사무실을 오는 9월말에 방생선원으로 옮기고, 서울 김동 무료급식소 관음의 집을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또 직업복지시설로 치매노인요양센터와 승려노후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교동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 특별기도

2005학년도 수능특별기도 :
2004년 8월 8일 -
11월 17일(만101일간)

기도성취도량 우리절에서 마음에
뜻하신 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 우리절 개산대제

오는 10월 7일 목요일은 이토록 아름다운 태화산에서 우리절이 문을 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하지 꼭 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전 10시부터 법회를 봉행하오니 우리절을 사랑하시는 불자가족 여러분, 부디 오셔서 축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불자님들과 함께 한국불교의 미래를 설계하고 싶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곤지암 우리절주지 일원동봉 합장

◆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요일	시간	법회명	강의내용
매주일요일	10-14시	일요가족법회	자경문강의
매주수요일	10-15시	목련사랑법회	화엄경강의
≡	10-15시	수능자녀기도	≡
≡	10-15시	지장경독송회	≡
매주목요일	10-15시	대비주기도회	예삼문강의
셋째화요일	14-17시	부산·동선회	주제법특강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 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4박5일 기공 지도사반 강좌」

불가에서 비밀리에 전하여온 신비의氣치료법 전수!

전신모세공 호흡법으로 사기, 병기를 배출하여 육체를 정화하는 비법!

天一氣功

www.chgg.co.kr

통증치료법의 전수를 받는다!

소주천속성법, 상기병을 치료하는 호흡법

*영기천도 많이 해서서 몸이 탁해 지신 스님들 탁한 기운 스스로 정화하는 법 공개

천일기공연구회 소백산수련원

Tel. (054)638-2224